

전남 5위 '도약' · 광주 10위 '추락'

전남이 3일 폐막된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29개, 은 23개, 동 406개를 획득,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다.



37회 전국소년체전 어제 막내려
서울 종합우승...내년 전남서 개최

전남의 5위 성적은 지난해 종합 12위에서 7계단을 상승한 비약적인 도약으로 전남도 교육청, 전남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남이 3일 폐막된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29개, 은 23개, 동 406개를 획득,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5위 성적은 지난해 종합 12위에서 7계단을 상승한 비약적인 도약으로 전남도 교육청, 전남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는 금메달 21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1개를 따내 당초 목표인 종합 3위 달성에 실패했고, 종합 10위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전남은 대회 마지막날인 3일 수영 남중 서



송원여중이 3일 광주 동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소년체육대회 여중 배구 결승에서 강호 충북 제천중을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팀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을 딛고 우승을 해 너무나 기쁘요!"

3일 제37회 소년체육대회 배구 여중 결승전이 열린 광주 동성고 체육관.

광주 송원여중이 강호 충북 제천중학교를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2년 만에 우승을 확정지은 순간 송원여중 선수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냈다.

이와 함께 동성고 체육관은 송원여중 응원단과 학교관계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의 합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관계자들도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이날 송원여중 배구 우승은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같은 재단의 송원여상이 2회전에서 탈락하자 뒤 이어 팀 해체가 거론됐고, 덩달아 송원여중까지 팀 해체가 야기가 불거져 선수들과 학부모들을 가슴

승훈(문수중 3년)이 개인혼영 200m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으며 정구 남초 선발이 역시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 축구 남중과 여중에서 광양제철중과 광영중이 각각 대구 대서중과 대구 삼원중을 꺾고 금메달을 보태 전남의 마지막 순위 상승에 힘을 실었다.

광주는 막판 순위 상승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지난해 6개씩의 금메달을 획득했던 역대, 양궁등의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날 광주는 단체 종목에서 금맥을 쫓았다. 야구 수창초가 전남 순천북초를 11-5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정구 여중 신광중이 전남선발을 2-1로 제압하고 역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배구에서는 여중 치평초와 여중 송원여중이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으며 펜싱 예매 여중 광주 효광중도 울산 서여중을 45-36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추가해 막판 광주의 순위상승에 힘을 보탰다.

2일남이 3일 폐막된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29개, 은 23개, 동 406개를 획득,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5위 성적은 지난해 종합 12위에서 7계단을 상승한 비약적인 도약으로 전남도 교육청, 전남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는 금메달 21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1개를 따내 당초 목표인 종합 3위 달성에 실패했고, 종합 10위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전남은 대회 마지막날인 3일 수영 남중 서

"오초아 비켜!"



박 세 리



장 정



이 선 화



최 나 연

이선화·박세리·장정 등 한국남자 38명

내일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출전

오초아 견제 속 2주 연속 우승 도전

11개월만에 우승 갈증을 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태극 자매들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크의 볼록골프장(파72·6천596야드)에서 개막하는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에는 38명의 한국 선수가 출사표를 냈다.

올해 54회째를 맞는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은 US여자 오픈에 이어 LPGA 투어에서 두번째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이다.

박세리(31)가 1998년 L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뤄내 한국 골프팬들에게도 낮은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은 올해 비상한 관심 속에 치러질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메이저대회 3연승 달성이다. 남자 선수 못지 않은 장타력에 정교한 아이언샷을 갖춘 오초아는 이미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다른 선수들이 꺾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우승 길목이 순탄치는 않다.

멍에로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이 대회를 3차례나 제패했던 화려한 경력을 내세운다. 작년 우승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플라 크리머(미국, 카리 웹(호주) 등도 오초아의 메이저 3연승을 저지하겠다는 각오이지만 38명의 한국 선수가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선화(22·CJ)가 11개월 동안 이어진 우승 갈증을 풀어내면서 사기가 부쩍 오른 '태극 자매'들은 내친 김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특히 맥도널드LPGA챔피언십과 짝한 인연을 맺고 있는 '맏언니' 박세리(31)와 우승 물꼬를 튼 이선화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코리아인 시스터스'를 앞장서 이끌고 있는 장정(28·기업은행)과 최나연(21·SK텔레콤), 김승희(20.월라코리아)도 메이저 챔피언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투어는 5일부터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사우스윈드TPC(파70.7천244야드)에서 스탠 퍼드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US오픈을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최경주(38·나이키골프) 등 웬만한 상위랭커들은 거의 출전하지 않는다.



축구팬 81% "박지성 올림픽행 반대"

맨유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

축구 팬 대다수가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에 뽑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림픽 경기 일과 잉글랜드 맨유 한국어판 인터넷 홈페이지는 3일 '박지성의 한국 올림픽 팀 외 카드 차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란 설문 조사에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전체 응답자 1만2천728명

의 81%에 해당하는 만282명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반면 '국가를 위해 뛰어야 한다'면서 찬성 표를 던진 응답자는 19%(2천446표)에 그쳤다.

이는 올림픽 경기 일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 일정이 겹치는 데다 현재 2010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참가 중인 박지성이 강행군으로 혹사당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팀 해체 위기 딛고
눈물의 'V 스파이크'

송원여중 배구 2년만에 전국 제패

아프게 했다. 다행히 재단에서 배구부 해체를 백지화해 송원여중은 제37회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됐고, 이번 소년체전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역시 팀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코트에서 죽자'는 선수단의 정신향을 자극, 우승 원동력이 됐다.

특히 이번 소년체전에서 송원여중의 전력은 동메달 수준.

하지만, 선수들은 "배구팀 해체를 있을 수 없다"는 필사의 각오와 정신향으로 소년체전을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대회에서 한마음으로 코트를 누비며 끈질긴 수비와 혼신의 오픈공격으로 대회 2회전부터 차곡차곡 승리를 쟁겼다.

2회전과 3회전에서 부산 경남여중과 대구 일중을 각각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후

이날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우승이 점쳐졌던 충북 제천여중과 시소게임을 벌여 2-1로 꺾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송원여중은 지난 1987년 제16회 마산 소년체전, 1995년 제24회 대전소년체전, 2006년 울산 제35회 소년체전에서 여자 중등부 배구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배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송원여중의 낭보가 있기 전 광주 치평초등학교 여자배구가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렸다.

전국최강의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치평초는 서울 주계초, 강원도 옥천초, 충남 둔포초를 잇따라 2-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대구 삼덕초등을 2-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치평초는 지난 2005년 12월에 팀을 창단한 후 2년 만에 각종 전국대회에서 무실세트 우승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전국최강으로 자리 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선발 초등 정구 대회 4연패

소년체전 4연패! 역대 11번째 우승!

3일 광주 동성고등학교 정구코트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구 남자 초등부 결승에서 전남 선발이 광주 선발을 제압하고 대회 4연패이자 11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예산부터 줄곧 일방적인 게임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남 선발(광양육곡초·점암초·순천남교)은 박희용·주종욱·김성수·정태현(이상 육곡초 6년)·김재진(점암초 6년)·최정

진·유원재(이상 순천남교 6년)로 이뤄진 연합팀.

이들 연합팀은 임종섭코치(광양 육곡초)의 지도 아래 지난 4월부터 육곡초에서 점암초와 순천남교 학생들을 위탁받아 함께 연습을 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해 전국 대회에 휩쓸었던 육곡초의 최강 전력에 순천남교와 점암초의 에이스들이 합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력을 구축했다.



정구 남자초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남선발팀 선수들이 임종섭(맨오른쪽)코치와 파이팅을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특히 동성고-조선대학교 출신으로 81년·83년도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에 출전했던 임종섭 코치의 지도로 전남 선발 선수들

은 안정된 스트로크와 게임운영에서 탁월한 감각을 자랑하며 전국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